

마태복음 14장,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요절 :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12-14장의 배경을 염두에 두는 것이 문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2장은 "회당"에 들어가서서(12:9) 말씀하셨으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12:14) 하고 배척을 받으십니다. 13장은 "바닷가"에 앉아서서(13:1)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나 "예수를 배척한지라"(13:57) 하고, 고향에서까지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14장은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14:13)로 가시는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첫째 단원), "5병 2어의 기적"(둘째 단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적"(셋째 단원) 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첫째 단원(1-12) 세례 요한이라 함
- 둘째 단원(13-21) 5병 2어의 기적
- 셋째 단원(22-36)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

첫째 단원(1-12) 세례 요한이라 함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1).

- ① "분봉왕 헤롯"은 누구인가?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한 헤롯 1세의 아들 헤롯 안디바인데, 갈릴리와 베뢰아의 분봉왕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요, 주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심문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②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2)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 부인 못할 주님의 권능을 헤롯과 신하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 ㉡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공포심(눅 9:7)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헤롯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 ③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12)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임을 당한 요한의 죽음을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기술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전주곡인 셈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코자 하는 중심주제인, ㉣ 예수가 누구인가? ㉤ 그는 왜 왔는가?를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4장의 주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33)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복음서의 분기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6:15)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13-21) 5병 2어의 기적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좃아간지라"(13).

-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5병 2어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14)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 있습니다. 왜 불쌍

한가?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9:36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9:36) 하십니다. 병이 들었어도, 가난해도 참 목자만 있다면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생명의 꿀)을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 3:17-18)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즉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②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란 최우선적으로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여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목자입니까?

③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는 묘사는, 요한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무리를 떠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려고 "빈들"로 가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 고을로부터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쫓아온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방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른 순서대로라면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저들에게 참 목자가 있어서 이끌어주었다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저리 몰려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응답의 동산으로, 부흥의 비법을 전수시켜준다는 세미나로 방황하는 무리들은 있습니다.

④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 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15) 합니다. 5병 2어의 기적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요 6:5-6)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즉 참 목자로 오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나 잘못 가르침을 받은 저희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물질축복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요 6:14-15) 합니다.

셋째 단원(22-36)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심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22).

① 본 단원의 중심점은 "바다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한 말씀을 앞 단원의 말씀과 결부시켜보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의 충동에 제자들까지 요동할까보아

재촉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23) 가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24)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으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단 말인가?

㉢ 때는 캄캄한 밤중(3-6시)입니다. ㉣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 전에 풍랑을 만났을 때(8:24)에는 주님이 함께 계셨으나 지금은 저들만이 당하고 있습니다.

㉥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임금 삼으려는 모처림의 호기를 뿌리치신 데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가?

㉦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25) 합니다. 주님은 지금 곡예(曲藝)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 또한 제자들만을 보내시고 자신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실 때부터 용의주도(用意周到)하게 의도된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람이 거슬러 고난 당할 것까지 아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잔잔한 바다가 아닌 거센 파도 위를 걸으심으로 표적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로 걸으신" 기사는 제자들만을 위한 표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26), ㉨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27) 하십니다.

㉩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28-31) 하십니다.

㉪ 이 표적의 의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배에 있는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33) 한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 전에 불만을 품었던 점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적은 자여" 하신 데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의 "믿음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일관된 훈련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보십시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6:30),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8:25-26),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16:8). 반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8:10),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15:28)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따라온 형제는 이제 주님을 누구라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까? 그리고 형제의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